

정책동향

April 2021 No.3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이은민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이은민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micha76@kisdi.re.kr

요약

- 마이데이터(My Data)란 기관·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플랫폼에 전송하거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데이터를 수집·전송·관리하는 주체가 기관·기업 중심에서 개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보안을 위해 '표준API' 채택
 - 금융업은 데이터의 종류나 처리방식이 이미 표준화되어있고, 금융정보가 생활정보와 결합될 때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산업에 앞서 우선 도입됨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2020.8.25.시행)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권 14개, 핀테크사 14개 등 총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됨(2021.1.27.)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금융업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출이 승인되고, 가명정보의 개념의 도입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업무가 가능해짐
-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촉발한 금융시장의 화두는 금융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이며, 점차 소비자는 플랫폼 편의성과 서비스 적합도 등을 보고 금융서비스를 선택
 - 이제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 보험상품·보험대출, 카드내역·카드대출·포인트, 선불발행·거래·주문내역 등 다양한 정보의 조화·결합·분석 가능
 - 금융사와 핀테크사는 향후 금융시장이 자산관리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광범위한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쟁우위를 잡하기 위해 노력

01 개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2020.8.25.시행),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임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 20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5개사), 여신전문업(6개사), 금융투자(1개사), 상호금융(1개사), 저축은행(1개사), 핀테크(14개) 등 28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 선정된 28개사는 2021.8.4일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
- 이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문, 대출중개,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등 더 적극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준비
- 이에, 본 고에서는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금융업과 핀테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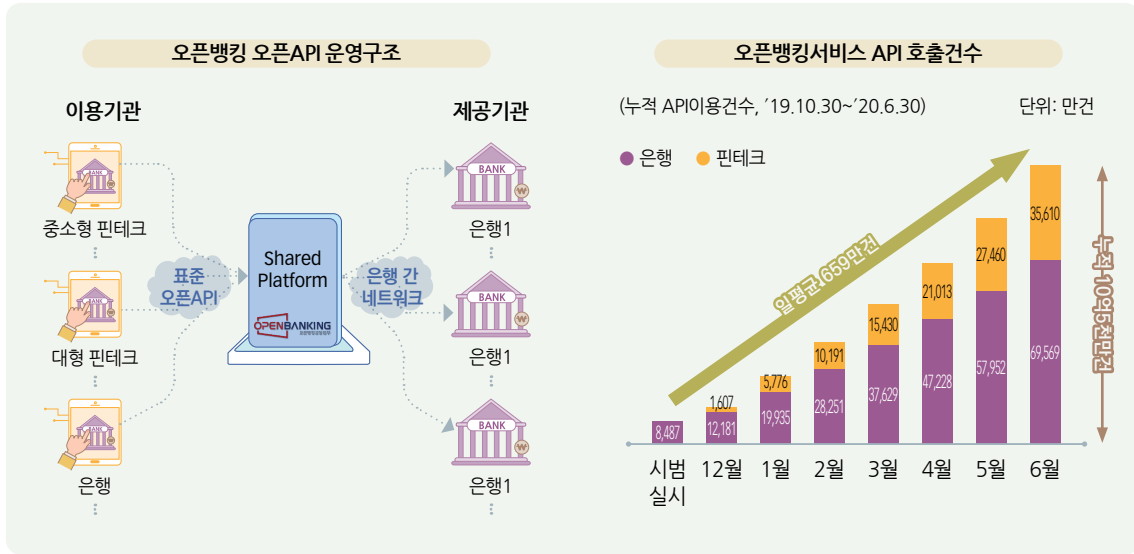
02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I 오픈뱅킹서비스 시행(2019.12.18.)

- 정보주체인 개인은 원하는 플랫폼(금융사, 핀테크사)에서 오픈뱅킹 계좌를 등록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금융사가 보유한 조화·이체 등 핵심 금융데이터를 타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에 표준화된 오픈API로 개방하는 내용의 오픈뱅킹서비스를 전면시행
 - 국내 금융사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을 위임받아 스크린스크래핑방식으로 금융사에 있는 개인금융정보를 가져와 금융관리, 대출관리, 보험관리, 자산관리 등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옴

*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를 작년에 전면시행한 이후(2019.12.18.), 2020년 6월 기준 API 누적 호출건수는 10억 5천만임. 동기간 오픈뱅킹 누적 가입자 수는 4천 96만명이고,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2천 32만명인데,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70%에 해당(금융결제원, 2020.7.6.)

1 그림 1 | 은행과 핀테크사의 오픈뱅킹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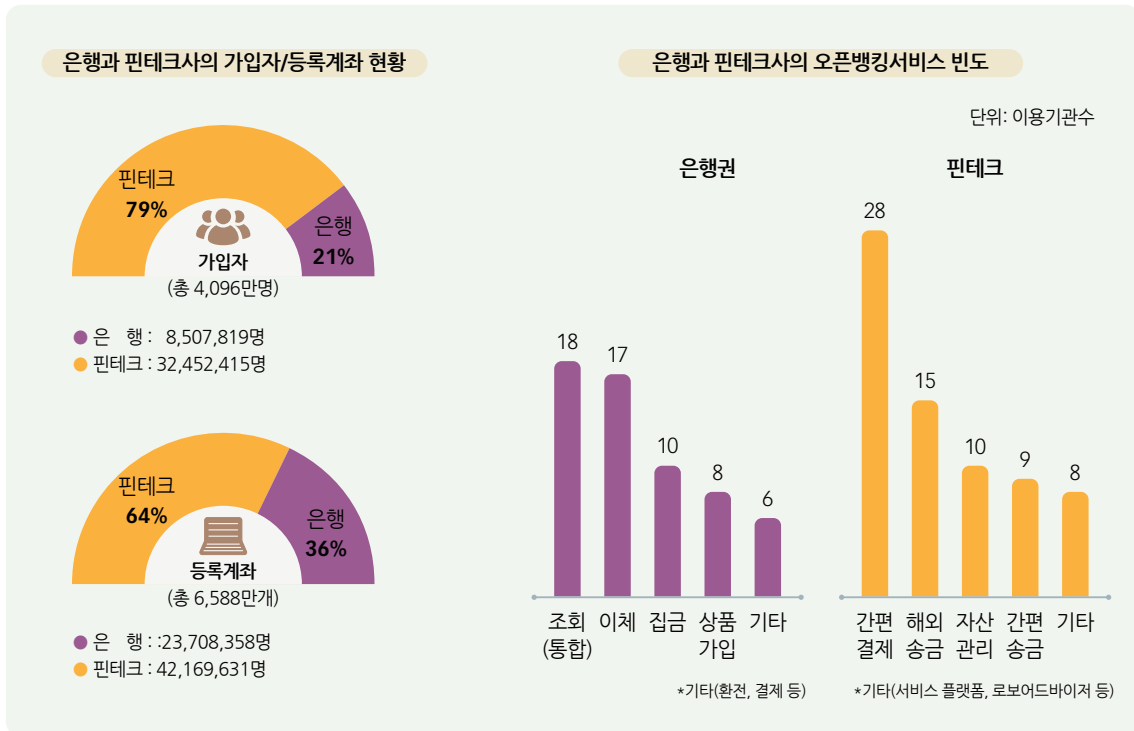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원(2020.7.6.),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 2020년 6월기준 은행의 오픈뱅킹 가입자는 851만명(21%)이고 핀테크 가입자는 3천 245만명(79%). 등록계좌 기준으로 살펴 보면 은행 계좌는 2천 371만개(36%), 핀테크사 계좌는 4천 217만개(64%)

*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중에는 조회/이체 등 뱅킹서비스 빈도가 높았고, 핀테크의 오픈뱅킹 서비스 중에는 간편결제, 해외송금,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1 그림 2 | 은행과 핀테크사의 오픈뱅킹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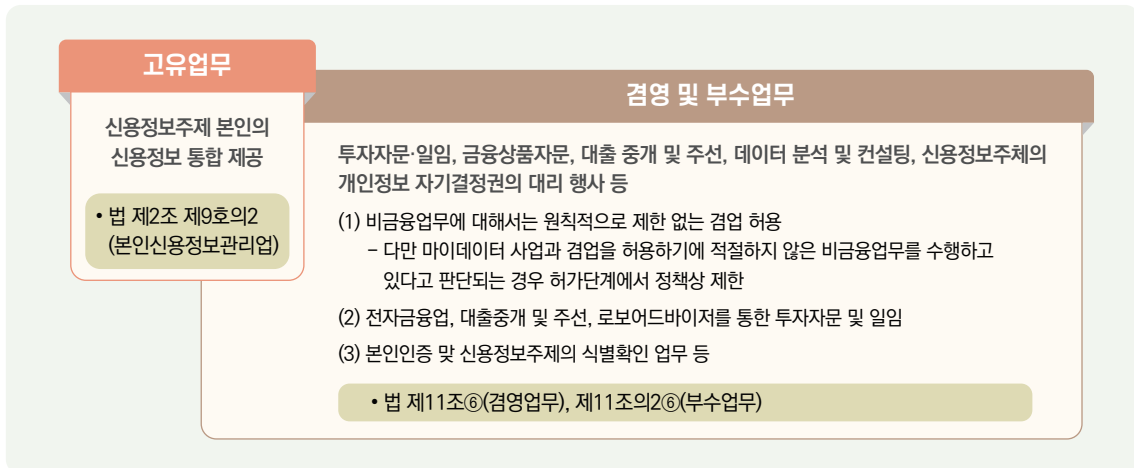


자료: 금융결제원(2020.7.6.),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I 신용정보법 개정(2020.8.2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2020.8.25.시행),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용정보법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의미
 - 신용정보 개정안으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투자자문 및 일임서비스, 금융상품 자문, 대출중개 및 주선,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됨

I 그림 3 I 신용정보법 제2조 제 9호의 2(본인신용관리업)



자료: 서정호(2021.1.28.), "마이데이터시대, 금융의 판도 변화", KIF 신년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

I 마이데이터사업자 선정(2021.1.27.) 및 운영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14개사, 핀테크 14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최종 허가
 - 금융업은 은행(5개사), 여신전문업(6개사), 금융투자(1개사), 상호금융(1개사), 저축은행(1개사) 등 14개사 선정
 - 핀테크사는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NHN페이코 등 14개사 선정
 - 금융위원회는 적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심사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로 선정
 - * 마이데이터사업자 심사요건: 자본금요건(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 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임원의 형사처벌 여부), 전문성 요건
 - *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를 가진 2대주주 엔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카카오페이의 허가심사가 보류되었음(연합뉴스, 2021.1.27.)

표 1 | 마이데이터 사업자 분허가를 획득한 28개 업체

업권	회사명
은행 (5개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전 (6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1개사)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1개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1개사)	웰컴저축은행
핀테크(14개사)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쿠폰, 팀워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1.27), “(주)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분허가(21.1.27.)”

- 선정된 28개 사업자들은 '21.8.4일부터 금융/보험/카드/전자금융/통신/조세/보험 등 개인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가능(스크래핑* 금지, 본인 직접인증 혹은 표준API**활용)
 - *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은 데이터 전송방법 중 하나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추출 하는 방법으로, 개인 인증정보가 업체에 노출되어 보안위험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은 개인의 동의나 인증절차가 필요없이 약속된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인터페이스로, 개인정보 보안측면에서 안전성이 담보
- 금융위원회는 제공정보범위, 소비자권리보호, 전송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금융사업자의 원활한 마이데이터서비스의 시행을 지원

표 2 |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제공정보 범위	(여·수신, 투자)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보험) 가입상품 및 대출 (카드) 월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12개범주) (기타) 통신비, 조세 및 4대보험 납부
소비자 권리보호	(명확한 동의) 쉬운용어사용,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정보보호강화) 서비스탈퇴를 쉽게 하고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금지. (보안관리) 보안사항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전송절차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 수신기관, 대상정보를 선택하여 요구,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가는 방식으로 인증, (정보전송) 정보유출 위험없는 API방식으로 전송, PDS(Personal Data Storage)활용

주: 제공정보의 범위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검토할 것이고,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2021.2.2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재처리

03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서비스 현황

I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요

-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기관·사업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금융투자사), 가입상품·대출(보험사), 월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사), 선불발행정보·거래내역·주문정보(전자금융), 통신비 및 세금납부 정보 등이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문, 대출중개,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등 더 적극적이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선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업체 중 14개 업체는 금융사(은행, 여신전문업, 금융투자, 상호금융, 저축은행)이고 14개는 핀테크사임
 - 금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통해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비금융 정보결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플랫폼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려는 상황
 - 핀테크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로써의 이점을 살려 고객의 온라인쇼핑, 온라인결제, SNS 등 일상생활 관련 데이터를 금융 및 신용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고객니즈가 높고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

I 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서비스 현황

- 금융사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폐쇄적인 금융환경에서 점차 비대면 업무(인터넷뱅킹) 비중을 늘리고, 2019년 12월부터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전격 도입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금융정보의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옴
 - 현재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등 5개 금융지주사가 마이데이터 1차 본허가를 얻었는데, 앞으로는 고객금융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금융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어려워 변화된 전략이 요구됨
 -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로는 예전처럼 은행이나 금융상품 자체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용 편의성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적합도 등을 보고 선택하는 등 금융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금융사들은 향후 금융시장이 자산관리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광범위한 플랫폼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변화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금융권 마이데이터서비스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산·부채·연금·부동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일부사업자는 실물자산이나 디지털자산까지 관리하는 서비스도 고려
- 그리고 시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개인의 결제정보/행동을 분석하고, 혁신금융기반 투자자문서비스나 안면인식결제서비스 등 IT기술기반의 고도화되고 세분화된 디지털금융으로의 빠른 행보를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통신, 자동차 등 이종산업들과 협업하여 데이터결합분석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분야로의 진출도 고려

표 3 | 주요 금융 사업자별 마이데이터 중점 서비스

사업자(서비스)	주요내용
국민은행 (KB마이머니)	- 신용관리서비스, 자동차관리서비스 등 '생활밀착형'서비스 고도화 - 이를 위해 유통, 통신, 헬스케어 기업,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 준비
농협은행 (NH자산플러스)	- 본인의 자산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추진 - 마이데이터 전담조직을 갖춰 고객중심의 마이데이터 통합 인프라 운영
신한은행 (MY자산)	-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 고도화 - 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디지털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정보계좌 서비스 제공 - 생활·문화 데이터도 자산으로 관리하기위해 유통·통신 등 이종산업과 협업
신한카드 (MY리포트)	- 시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비금융혜택 등 개인 자산관리 - 마이데이터사업 전담본부인 DNA사업추진단을 신설해서 비즈니스 고도화지원 - 혁신금융기반 투자자문서비스오픈, 안면인식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 등 준비
KB카드 (리브메이트3.0) (SOS 서비스)	- 통합멤버십플랫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분석한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 카드이용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분석하여 맞춤형 혜택을 실시간 제공 (예: 여행고객에 주유 및 면세점쿠폰, 영화본고객에게 커피쿠폰 발송 등)
농협 상호금융 (마이농가)	- 농·축협 조합원 대상으로 영농자금관리 등 농민맞춤형서비스 제공 - 영농지원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금융 연결하는 농업 데이터 활성화 목적

자료: 바이라인(2021.3.4.); 전자신문(2021.3.18.); 라이선스뉴스(2021.1.28.a); 뉴데일리경제(2021.2.16.); 디지털투데이(2021.1.1.); 농민신문(2021.1.29.) 자료 재정리

핀테크사업자의 마이데이터서비스

- 마이데이터서비스의 본격 추진으로 핀테크사업자들도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 보험가입 상품·대출, 카드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 선불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역 등 금융 및 비금융 정보의 조회·결합·분석 가능해짐
- 핀테크사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여 좀 더 소비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데이터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이 어려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핀테크사업자들은 고객의 쇼핑내역, 자동차, 부동산, 건강 등 방대한 비금융데이터에 금융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금융정보이력이 부족한 20~30대 및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정교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플랫폼사업자로서의 특징점임
- 향후 서비스의 범위는 현 생활밀착형 서비스중심에서 체계적인 생애재무관리나 머신러닝기반 맞춤형 카드 추천 등 고도화된 금융서비스까지 확장될 것임

표 4 | 주요 핀테크 사업자별 마이데이터 중점 서비스

사업자(서비스)	주요내용
네이버 파이낸셜 (내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가 보유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내자산'에서 은행, 증권, 카드, 대출, 자동차, 신용정보, 부동산, 세금 관리 등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나이스신용정보와 제휴, 네이버페이 신용관리서비스 시작(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사 등의 정보를 제출하면 신용점수에 즉시 반영) - 향후 서비스의 범위는 현 생활밀착형 서비스중심에서 체계적인 생애재무관리나 머신러닝기반 맞춤형 카드추천 등 고도화된 금융서비스까지 확장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스 앱에서 은행, 카드, 보험, 대출, 신용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토스인슈어런스(보험업), 토스증권, 토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으로 유일하게 직접 금융데이터를 확보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
뱅크샐러드 (라이프매니지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투자·보험 등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부동산·건강 등 라이프 영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관리 서비스 제공
NHN페이코 (MY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간편결제·충전금액 통합조회, 신용관리,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등 세부항목들이 추가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2030세대에 특화된 조회항목(정기결제, 구독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금융이력이 부족할 때 페이코결제 및 NHN관계사 이용정보로 신용점수 산정
판다 (대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여개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조회/비교·분석하는 '비교대출서비스'와 개인의 현금흐름을 최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대출관리서비스 제공

자료: 테크M(2021.2.4.); 비즈니스와치(2021.2.15.); 아시아투데이(2021.3.8.); 라이선스뉴스(2021.1.28.b); 퓨터월드(2021.3.1.)
자료 재정리

참고문헌

금융결제원(2020.7.6.),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1.27), “(주)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금융위원회(2021.2.23.),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농민신문(2021.1.29.), “농협 상호금융·은행 ‘마이데이터사업’ 본격화”

뉴데일리경제(2021.2.16.),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신사업 준비 ‘착착’, “디지털 수익 키울 것””

디지털투데이(2021.1.1.), “카드사 ‘같은 듯 다른’ 마이데이터 전략...서비스 차별화 박차”

비즈니스와치(2021.2.15.), “[마이데이터 시대] 주목받는 ‘테크 3인방”

라이선스뉴스(2021.1.28.a),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종합 금융상품 솔루션 플랫폼’ 만들 것”

라이선스뉴스(2021.1.28.b) “NHN페이코,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금융지식 부족한 2030 세대 겨냥’

바이라인(2021.3.4.), “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에 열심인 이유”

서정호(2021.1.28.), “마이데이터시대, 금융의 판도 변화”, KIF 신년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투데이(2021.3.8.), “뱅크샐러드, 금융 외 주거·건강 등 데이터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세운다”

연합뉴스(2021.1.27.),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허가 첫 획득”

전자신문(2021.3.18.), “[마이데이터 콘퍼런스]이상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 부문장 “마이데이터, ‘초개인화’ 경쟁력 성패 좌우할 것“

컴퓨터월드(2021.3.1.), “[초점] 마이데이터로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 열린다:

테크M(2021.2.4.), “네이버 ‘마이데이터’ 시작은 네이버페이 ‘내자산’부터다”

금융카드 웹페이지, “Smart Offering System”, https://card.kbcard.com/cxl/jsp/sos/sos_service.jsp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연번	제목	저자
2021-01-01	초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라성현·정재윤
2021-01-02	정책동향 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전성호
2021-01-03	정책동향 영국의 유선전화 요금정책: BT의 자발적 요금 인상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윤도원
2021-02-01	초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장재영
2021-02-02	초점 반도체산업 성장에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Foundry 중요성	김민식·이영중
2021-02-03	정책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회원국의 대응동향	황해인
2021-03-01	초점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시장구조 및 이용시간의 변화(2019년~2020년)	하승희·이채성
2021-03-02	연구동향 2020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 고찰	조성은
2021-03-03	시장동향 터키의 방송시장과 한-터키 방송 콘텐츠 교류 현황	노은정
2021-04-01	정책동향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정연희
2021-04-02	초점 AI Multi-curation과 OTT 서비스 콘텐츠의 이용행태 변화	심흥진

KISDI PERSPECTIVES는 국내 외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 노희윤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hyooon@kisdi.re.kr, 043-531-4042)